

수술의 탄생을 읽고

수술의 탄생이라는 책은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나서 처음으로 읽어본 나에게는 일종의 위인전 같은 책이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의학과 관련된 책을 몇권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읽어본 의학책과는 다르게 의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인물의 삶과 관련된 내용과 과거의 병원에 모습에 중점을 둔 책이라 새로웠다. 그래서 이 책이 위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과거 마취라는 것이 없었을 때의 이야기였다. 과거에는 마취제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마취 없이는 어떤 방법을 취하던 환자가 아프지 않도록 수술할 좋은 방법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사람들에게 살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한다.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병원은 당연히 살기 위해 가는 곳이고, 요즘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웬만한 병들은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는 것으로 과연 병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했길래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가정에서보다 사망률이 높게 나왔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그 점은 책을 읽으면서 차근차근 알 수 있었는데 이 책의 주인공 조지프 리스터의 업적과도 관련이 있고 의학계에서도 큰 역할을 한 '위생'이 바로 그 여부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위생은 병원에서는 당연히 지켜야할 필수적인 요소이다. 나는 과거에도 위생 정도는 필수적으로 관리를 실시한 줄 알았다. 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세균 감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종교적 이유 같은 것으로도 감염에 대해 새로운 이론을 내세우기란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직접 위생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에 앞장 선 사람이 바로 조지프 리스터이다.

외과의인 조지프 리스터는 만약 내가 꿈을 이뤘을 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조지프 리스터는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 했고 알고 싶은 것에 대해 탐구했다. 그리고 스승 밑에서 열심히 배우는 좋은 학생이자 제자였고, 한 가정의 좋은 아들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조지프 리스터에 대해 알아갈 때마다 외과의로서의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 나도 의사가 된다면 조지프 리스터같이 실력과 인성을 모두 겸비한 외과의가 되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조지프 리스터처럼은 아니더라도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수술의 탄생을 읽고나서 현재와는 다른 의사, 특히 외과의라는 직업의 귀천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외과의가 그저 손을 쓰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었고 그렇게 좋은 직업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다. 병원 자체의 인식도 현재와 과거는 많이 달라졌다. 죽으러 가는 곳과 살기 위해 가는 곳으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 시대의 의사들이 살 수 있다는 환자들의 믿음에 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술의 탄생은 현대 의학의 기본인 위생의 시초를 설명하고 조지프 리스터라는 의사에 대해 이야기 한다. 나는 이 책을 읽고 과거의 의학과 현대의 의학을 비교하면서 알아가고 조지프 리스터라는 훌륭한 의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 좋았고 나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더 흥미롭게 책을 읽었던 것 같다. 앞으로 수술의 탄생과 같은 의사들의 이야기, 병원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더 읽고 그것에 대해 더 알아가고, 이해해나가고 싶다.